

제주 첫 '노동존중가게' 선정

'위더스트래블'·'파인더' 2곳...근로기준법 준수 등 모범 보여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제주지역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노동존중가게'가 처음 선정됐다. (세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허재혁)는 제주도 아라1동에 위치한 브런치카페 '위더스트래블(대표 김윤주)'과 제주도 이도2동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파인더(대표 지준호)' 등 2곳을 노동존중가게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존중가게 지정은 노동권 침해와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이 발생하기 쉬운 서비스·판매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을 격려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 노동존중가게로 선정된 위더스트래블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들을 다수 채용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은 물론 합법로 근로자를 교체하지 않고 장기간 함께 일하는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파인더는 종업원 수가 무려 7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제주시 아라동 브런치카페 '위더스트래블'과(사진 왼쪽) 제주도 이도2동 커피전문점 '파인더' 2곳이 노동존중가게로 지정됐다.

을 준수하며 주기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노동존중가게로 선정됐다.

지준호 파인더 대표는 "사회 초년생 때 열악한 노동환경을 몸소 체험하면서 내 사업장에는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노동존중가게 지정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과 다짐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주 위더스트래블 대표는 "노동존중가게 지정을 계기로 스스로

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동존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복기 행복나눔제주공동체 사무국장은 "제주지역 서비스·판매업종은 대부분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현실적인 여건 상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노동존중가게 지정이 제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존중 문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kdy84@jejunews.com

가축분뇨 무단 배출 불시 단속한다

제주시, 두달간 돈사 117곳

자치경찰 합동 지도·점검

드론 활용한 감시도 실시

제주시는 2000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자치경찰단과 함께 축산분뇨 적정 배출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1일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관내 117개소 양돈장을 대상으로 가

축분뇨 무단 배출 행위 및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처리 관리 대장 작성 여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청결 상태 ▲악취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드론을 활용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 여부에 대해서도 감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2개소 6명의 점검반을 편성,

점검 대상 축산농가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의 자구 노력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24명을 투입해, 악취 발생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에 대한 민간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사업장 35개소를 적발해 고발 10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개선명령 15건, 과태료 18건, 과징금 부과 4건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학생문화원 앞 차로 갈등...도교육청-주민 주장 평행선

도·도의원·서귀포시 대책회의

이해관계 얽히며 결론 못 내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서귀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시 관련 공무원, 서귀포시지역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 중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지나는 구간의 지하차로 개설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서귀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시 관련 공무원, 서귀포시지역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 중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지나는 구간의 지하차로 개설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지하차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상차로'로 설계해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은 '지상차로'로 사업을 시행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관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경용 의원(민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

권도 보장하기 위해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지하차로 계획에 반대하는 동홍동 주민 20여명은 회의실 입구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지하차로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문기 기자 kafka71@jejunews.com

마을어장 2곳 '시비제' 살포

서귀포시는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마을어장에서 '바다 식목일'(5월 10일) 행사의 일환으로 '바다의 비료'라 일컫는 시비제 살포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5월 중 3700만원을 투입해 사업 대상지로 추천된 보목동과 성산읍 신천리 등 2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시비제 11t을 살포한다.

시비제 살포 사업은 갯녹음이 심화된 마을어장에 감태 등의 해조류 서식환경을 제공해 소라·전복 등 패류 수확량을 늘리고,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서귀포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표현면 하천리 등 9개 마을어장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시비제를 살포했다.

제주 관광개발 사업서 지역 업체 참여 등 '성과'

도, 투자·고용 실적 공표

제주도내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지역 업체 참여 실적이 상반기와 비교해 298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도내 관광개발 사업장(37개소) 및 투자진흥지구(25개소) 등 62개소에 대한 투자와 고용, 지역 업체 참여 실적(2018년 12월말 기준)을 공표했다.

공표 결과 지난해 6월과 비교해 투자자는 6691억원, 고용은 714명, 지역 업체 참여 실적은 298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기 대비 투자 실적은 0.7%p, 고용 실적은 1.1%p, 지역 업체 공사 참여

실적은 2.1%p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계획 대비 62개 전체 사업장의 실적을 보면 계획(20조 7143억원)대비 누적 투자는 11조 717억원(53.4%)로 나타났다.

계획된 고용인원 3만8128명 가운데 1만1355명이 고용됐고, 이 중 도민은 8707명으로 76.7%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역 업체 참여(계획 4조 7260억원) 실적은 지난해 12월까지 2조 752억원(43.9%)으로 나타났다.

준공이 완료돼 운영 중인 25개 사업장의 경우, 계획 대비 투자 실적은 100% 초과, 고용 실적은 98.5%이며, 지역 업체 참여도 계획 대비 83.5%의 실적을 보였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민요를 산불 감시 초소 정비

전망대·휴식 등 다목적 기능

제주시 오라2동 민요름에 설치된 FRP 단열재 산불 감시 초소가 국산목재를 활용해 친환경 다목적 기능을 갖춘 전망대형 산불 감시 초소로 설치된다.

현재 민요름 정장부의 산불 감시 초소는 2000년에 설치돼 시설이 노후되고 주위 나무가 자라 시야를 가리고 있어 산불 감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산불 감시뿐만 아니라 오름 탐방객의 휴식 공간과 우천 시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다목적 산불 감시 초소를 7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친환경 다목적 산불 감시 초소는 2층이 전망대형으로 설계돼 산불 감시에 용이하도록 하고 전망대 아래 공간에는 의자 등을 마련해 오름 탐방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등록번호 50110-2016-00218(대표/공인중개사 김민건)

김스공인중개사무소

맞춤형 토지 중개전문

사업부지, 공장부지, 주택지, 별장지

- 사업부지(타운하우스, 태양광 발전부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전임 혼용)
- ▶ 위치 : 애월 광명리 (무수천 서쪽 임팩트골프 연습장 근접)
- ▶ 면적 : 18,710㎡
- ▶ 금액 : 3.3㎡당 25만원
- ※ 토지, 건물 신속처리해드립니다.

Tel. 748-0052 HP. 010-3639-8003

기획보충보형 2억원 가입 업체

힐링 패키지 동남아의 휴진주! 제주직항 동남아시아 라오스 패키지

라오스 5일

비엔티엔 + 방비엥 핵심관광

6월 26일(수) 단회 1인 999,000원

전세기 상품으로 성인/소아 요금 동일합니다.

● 바다가 없는 라오스(비엔티엔, 방비엥)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된다는 라오스는 최근 티비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몽쳐야 뜬다> 등 다양한 매체에서 방영되어 생소했던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여행지로 발전했다. 특히, 유럽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동남아의 휴진주라고도 불리고, 고즈넉한 풍경의 거리를 거닐면 마치 우리나라의 1970년대를 보는 듯하며, 또한 소도시 방비엥 지역의 풍경은 중국의 계림을 꼭 빼닮아 산수가 아주 화려하다.

협찬 : 티웨이항공

라오스 골프

3박 5일 (54홀)

1인 1,290,000원

그린피/캐디/전동카트/클럽중식 포함 캐디팁 별도(18홀당 1인 10\$, 싱글차지 별도)